

News

'빚투'에 전세난까지 겹쳐 10월 가계대출 10조 넘어

국민일보

'빚투'에 이어 주택·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액이 10조6000억원 늘어... 올 한 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수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한도 제한 등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본격 나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9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0.30%...전월대비 0.07%p ↓

서울경제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

"금리 인하에 유동성 공급,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회사 임원 선임 간섭말라" 금감원, 지주사 지배구조 잇단 경고

데일리안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잇단 경고음...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 선임 역시 관여를 최소화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젠 은행 차례... 내년 돼야 제재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올해 안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입장을 제출하지 않아...

윤석현 금감원장은 이달 초 은행들의 제재 절차를 늦어도 다음달 중 시작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영업 어렵다면서... 그룹에 수백억 브랜드로 몰아준 보험사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그룹 지주회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달 DB손해보험에게 '브랜드 사용료 산정산식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 DB손보 측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

전동킥보드 규제 다음달부터 완화되는데... 보험사, 전문 보험 개발 난항

아시아경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문턱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보험업계의 고심도 깊어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 피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옵티머스 투자금 4000억원 날렸다... 분쟁조정 얼마나 걸리나

머니S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예상 회수금은 783억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금액의 90%가 넘는 4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

"최종 투자처에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돈은 횡령이나 둘려막기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라임 증권사 무더기 증징계 후폭풍... 소송전 예고

뉴스

CEO들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최대 직무정지 등의 증징계로 결정... 증징계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KB증권은 임원 공백의 타격을 받게 돼...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결론나더라도 판매사들의 행정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